

# 해 외 직 접 투 자 동 향 분 석

## (2011년 3/4분기)

2011. 11. 11.

해 외 경 제 연 구 소   해 외 투 자 분 석 반



## 목 차

요약 .....	II
I. 개 요 .....	1
II. 지역별 동향 .....	2
III. 업종별 동향 .....	6
IV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 .....	8
V. 기 타 .....	9



## < 요약 >

□ 2011. 3/4분기 총 해외직접투자(실행기준)는 전년동기 대비 3.7% 증가한 61.9억 달러 시현

- 지역별로는 북미와 아시아, 업종별로는 제조업, 도매 및 소매업과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 사업 중심의 투자 증가가 전체 투자 증가를 견인

### 【 지역별 】

□ 북미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투자 증가세 지속, 중남미는 큰 폭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, 유럽은 감소세

- 북미와 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광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각각 28.5%, 18.3%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중남미 53.2%, 아프리카 77.6% 등 유럽 -76.4%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투자 증가

※ 아시아(30.3억 달러), 북미(16.7억 달러), 중남미(7.5억 달러), 유럽(3.0억 달러)

### 【 업종별 】

□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이 투자 증가세를 보인 반면, 광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감소세

- 제조업 투자가 A사의 태국과 인도네시아 대규모 투자(총 7.9억 달러)에 힘입어 100.6% 증가하여 금액 비중이 45.4%에 달함
- 광업과 금융 및 보험업 투자는 각각 41.6%, 34.0% 감소하여 비중이 각각 21.2%, 11.3%에 그침

※ 제조업(28.1억 달러), 광업(13.1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7.0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3.2억 달러)



## 【 투자기업규모별 】

### □ 전년동기 대비 대기업 투자비중 감소세

-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7.9% 감소하여 그 비중이 전년 동기 84.1%에서 74.6%로 축소

## 【 투자규모별/지분율별 】

### □ 1억 달러 초과의 대규모 투자비중 전년동기 대비 증가

- 금분기 1억 달러 초과 대규모 투자비중은 전체의 40.9%를 차지하여 전년동기(53.2%)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전기(36.7%) 대비 증가

### □ 지분율 100%인 투자금액 비중 전년동기 대비 감소

-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전년동기 74.5%에서 금분기 66.9%로 감소



## I. 개 요

- 2011. 3/4분기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3.7% 증가한 61.9억 달러를, 신규법인수는 4.7% 감소한 683개를 시현
- 지역별로는 비중이 큰 북미 및 아시아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8.5%, 18.3% 증가하였으며,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증가세가 각각 100.6%, 25.9%로 두드러졌음.

<표 1>

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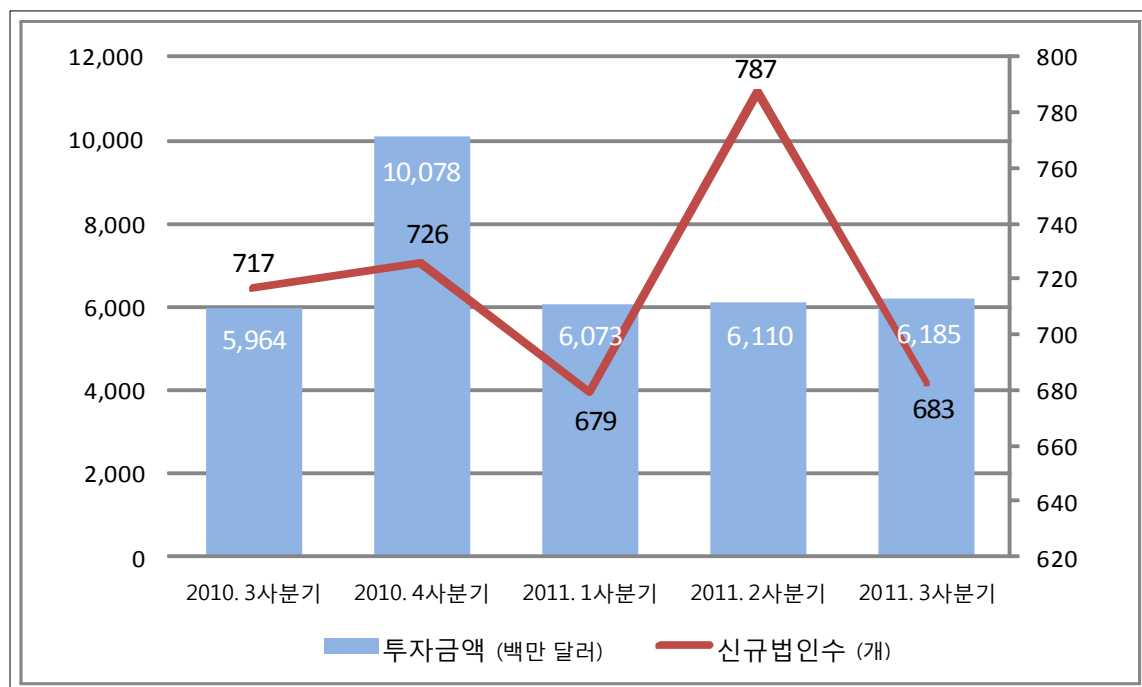
구 분	2008		2009		2010		2010. 2/4		2011. 2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전체	23,843	4,025	20,084	2,476	23,158	2,846	5,964	717	6,185	683
(증감율)	7.3%	-29.3%	-15.8%	-38.5%	15.3%	14.9%	49.3%	2.3%	3.7%	-4.7%

\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- 금분기 투자비중은 지역별 아시아(49.0%), 북미(27.0%), 중남미(12.2%), 유럽(4.8%), 대양주(4.1%) 순이며, 업종별 제조업(45.4%), 광업(21.2%), 금융 및 보험업(11.3%) 순임.

<그림 1>

최근 5분기 해외직접투자 추이 (실행 기준)





※ 투자 상위 국가(억 달러) :

미국(14.8), 중국(10.4), 태국(4.9), 인도네시아(4.6), 브라질(3.6)

※ 투자 상위 투자자(억 달러) :

A사 (9.2), B사 (5.9), C사 (4.3), D사 (3.3), E사 (2.1)

※ 투자 상위 현지법인 (억 달러) :

A사 태국 현지법인 (4.8)

C사 미국 현지법인 (3.6)

A사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(3.1)

B사 중국 현지법인 (2.4)

B사 브라질 현지법인 (1.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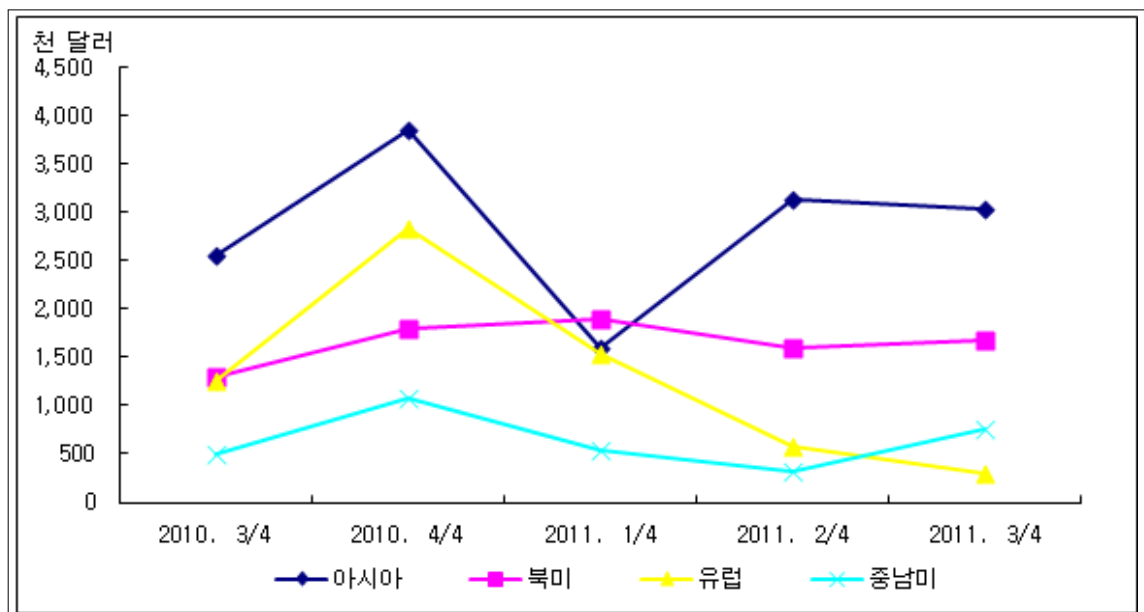
## II. 지역별 동향

### 1. 개관

- 북미와 아시아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28.5%, 18.3% 증가한 가운데 중남미도 53.2%로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세 시현

<그림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

- 국가별로 아시아에서는 중국(10.4억 달러), 태국(4.9억 달러), 중남미 내에서는 브라질(3.6억 달러), 북미는 미국(14.8억 달러)에서 두드러진 투자 실현
- 업종별로 아시아는 제조업(21.8억 달러)과 광업(1.9억 달러), 중남미는 제조업(3.8억 달러) 및 광업(0.7억 달러), 북미는 광업(7.0억 달러)과 금융 및 보험업(5.2억 달러) 중심으로 투자
-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 49.0%, 북미 27.0%, 중남미 12.2% 순이며, 이 상위 3개 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88.2% 차지
- 전년 동기의 경우 아시아, 북미, 유럽 3개 지역이 각각 42.9%, 21.8%, 21.0%의 투자비중을 보이며 전체의 85.8% 차지

<표 2>

**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**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8		2009		2010		2010. 3/4		2011. 3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아시아	11,675	2,747	6,629	1,579	9,444	1,910	2,560	478	3,029	483
(비중)	49.0%	68.2%	33.0%	63.8%	40.8%	67.1%	42.9%	66.7%	49.0%	70.7%
(증감율)	0.8%	-27.5%	-43.2%	-42.5%	42.5%	21.0%	70.6%	8.4%	18.3%	1.0%
북미	5297	808	5998	534	4,499	546	1301	139	1,672	97
(비중)	22.2%	20.1%	29.9%	21.6%	19.4%	19.2%	21.8%	19.4%	27.0%	14.2%
(증감율)	40.9%	-38.7%	13.2%	-33.9%	-25.0%	2.2%	34.7%	-7.3%	28.5%	-30.2%
유럽	3390	196	5145	130	5,883	152	1253	34	296	32
(비중)	14.2%	4.9%	25.6%	5.3%	25.4%	5.3%	21.0%	4.7%	4.8%	4.7%
(증감율)	-23.5%	-22.8%	51.8%	-33.7%	14.3%	16.9%	78.2%	-10.5%	-76.4%	-5.9%
중남미	2,102	91	1,040	89	1,950	87	492	30	753	25
(비중)	8.8%	2.3%	5.2%	3.6%	8.4%	3.1%	8.2%	4.2%	12.2%	3.7%
(증감율)	62.4%	-10.8%	-50.5%	-2.2%	87.5%	-2.2%	4.6%	0.0%	53.2%	-16.7%

\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## 2. 지역별 동향

### 가. 아시아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30.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8.3% 증가하였으며, 신규 법인수는 1.0% 증가한 483개를 기록
- 국가별로는 중국(10.4억 달러), 태국(4.9억 달러), 인도네시아(4.6억 달러), 베트남(2.9억 달러), 홍콩(1.9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중국 투자비중이 34.3% 차지
- 아시아 투자액 중 중국 투자비중 : '08년 32.1%, '09년 31.9%, '10년 33.5%, '11. 1/4분기 32.8%, '11. 2/4분기 42.8%

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21.8억 달러)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1.7억 달러), 광업(1.9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1.4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0.7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하여 제조업 투자비중이 71.8% 차지
- 아시아 투자액 중 제조업 투자비중 : '08년 35.9%, '09년 41.0%, '10년 51.5%, '11. 1/4분기 53.6%, '11. 2/4분기 47.5%
- 주요 투자 사업
  - A사의 태국 제조업 투자 : 4.8억 달러
  - A사의 인도네시아 제조업 투자 : 3.1억 달러
  - B사의 중국 제조업 투자 : 2.4억 달러

#### 나. 북미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28.5% 증가한 16.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신규법인수는 30.2% 감소한 97개를 기록
- 국가별로는 미국(14.8억 달러), 캐나다(1.9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업종별로는 광업(7.0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5.2억 달러), 제조업(1.5억 달러)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1.1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1.0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하여 광업 투자비중이 41.9%, 금융 및 보험업은 30.9% 차지
- 북미 광업 투자비중 : '08년 27.1%, '09년 50.3%, '10년 27.5%, '11. 1/4분기 45.2%, '11. 2/4분기 28.3%
- 북미 금융 및 보험업 투자비중 : '08년 1.6%, '09년 2.0%, '10년 34.7%, '11. 1/4분기 2.6%, '11. 2/4분기 36.3%
- 주요 투자 사업
  - C사의 미국 광업 투자 : 3.6억 달러
  - D사의 캐나다 광업 투자 : 1.4억 달러
  - F사의 미국 광업 투자 : 1.4억 달러

#### 다. 유럽

- 유럽의 금분기 투자금액은 3.0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32개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-76.4%, -5.9%를 기록하여 투자금액이 대폭 감소



- 국가별로는 저지(0.8억 달러), 영국(0.6억 달러), 네덜란드(0.5억 달러), 러시아(0.4억 달러), 노르웨이(0.3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(0.8억 달러), 제조업(0.7억 달러), 광업(0.5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0.3억 달러)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0.3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하여 금융 및 보험업 투자비중은 26.2%에 이름.
- 유럽지역 금융 및 보험업 투자비중 : '08년 1.2%, '09년 4.0%, '10년 0.3%, '11년 1/4분기 10.5%, '11년 2/4분기 42.2%
- 주요 투자 사업
  - E사의 저지 금융 및 보험업 투자: 0.8억 달러
  - G사의 영국 제조업 투자: 0.4억 달러
  - H사의 노르웨이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투자: 0.3억 달러

#### 라. 중남미

- 금분기 투자금액은 7.5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25개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53.2%, -16.7%를 기록
- 국가별로는 브라질(3.6억 달러), 영국령 버진군도(0.8억 달러) 순으로, 업종별로는 제조업(3.8억 달러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(1.7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주요 투자 사업
  - B사의 브라질 제조업 투자 : 1.8억 달러
  - I사의 바베이도스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 투자 : 1.7억 달러

#### 마. 기타

- 전년동기 대비 투자액 증가율은 대양주는 9.6%, 중동은 12.9%, 아프리카는 77.6%로 모두 증가세를 보임.
- 주요 투자 사업
  - D사의 오스트레일리아 광업 투자 : 1.3억 달러
  - J사의 마다가스카르 광업 투자 : 0.6억 달러
  - K사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매 및 소매업 투자 : 0.3억 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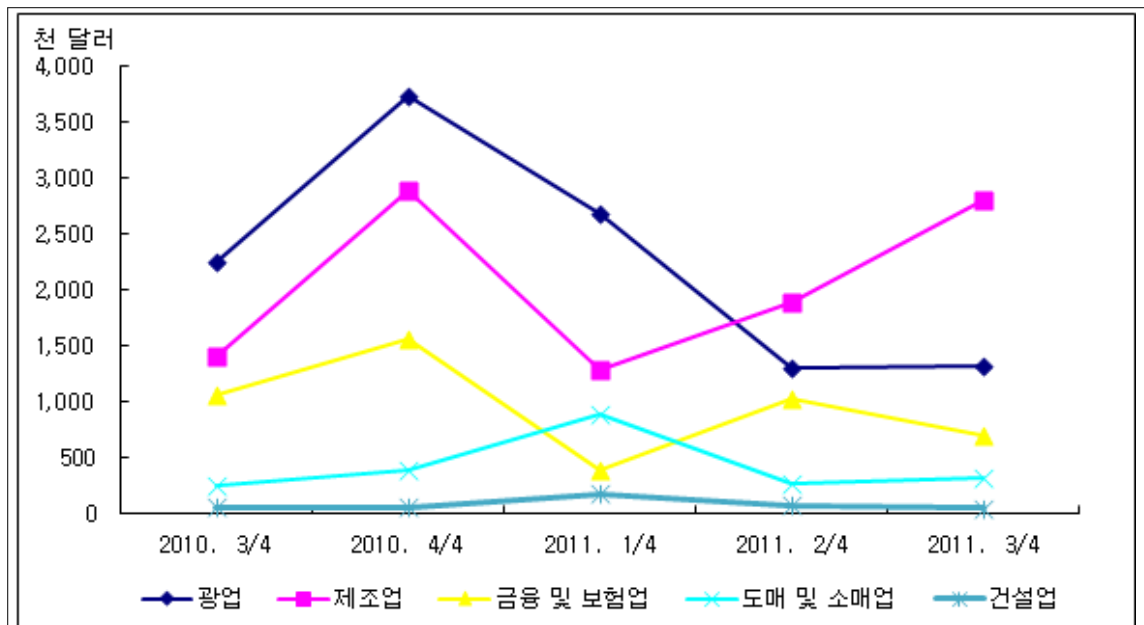


### Ⅲ. 업종별 동향

#### 1. 개관

- 금분기 업종별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제조업 100.6%,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이 255.8% 증가하여 두드러진 모습을 보인 가운데, 숙박 및 음식점업 57.3%, 도매 및 소매업 25.9% 증가한 반면, 광업 41.6%, 금융 및 보험업 34.0% 감소

<그림 3>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주요 업종별 투자비중은 제조업 45.4%, 광업 21.2%, 금융 및 보험업 11.3%, 도매 및 소매업 5.2%, 건설업 0.7% 순을 기록하여 제조업의 투자비중이 더욱 확대
  - 제조업의 경우 국가별로 중국(8.9억 달러), 태국(4.9억 달러), 인도네시아(4.1억 달러), 브라질(3.4억 달러)의 순으로, 광업은 미국(5.5억 달러), 오스트레일리아(2.0억 달러), 캐나다(1.5억 달러) 중심으로 투자
  - 제조업 투자비중 : '08년 29.7%, '09년 22.7%, '10년 28.2%, '11년 1/4분기 21.2%, '11년 2/4분기 31.0%
  - 광업 투자비중 : '08년 17.4%, '09년 27.1%, '10년 31.2%, '11년 1/4분기 44.1%, '11년 2/4분기 21.2%



<표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8		2009		2010		2010. 3/4		2011. 3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광업	4,137	109	5,439	66	7,230	52	2,248	12	1,312	10
(비중)	17.4%	2.7%	27.1%	2.7%	31.2%	1.8%	37.7%	1.7%	21.2%	1.5%
(증가율)	100.4%	51.4%	31.5%	-39.4%	32.9%	-21.2%	527.5%	33.3%	-41.6%	-16.7%
제조업	7070	1,396	4556	848	6,531	1,116	1400	280	2,807	264
(비중)	29.7%	34.7%	22.7%	34.2%	28.2%	39.2%	23.5%	39.1%	45.4%	38.7%
(증가율)	-13.2%	-38.0%	-35.6%	-39.3%	43.4%	31.6%	28.2%	18.1%	100.6%	-5.7%
금융 및 보험업	2158	81	1970	47	3,195	61	1061	17	701	20
(비중)	9.0%	2.0%	9.8%	1.9%	13.8%	2.1%	17.8%	2.4%	11.3%	2.9%
(증가율)	28.0%	5.2%	-8.7%	-42.0%	62.2%	29.8%	38.7%	0.0%	-34.0%	17.6%
도매 및 소매업	3742	789	1792	527	1,143	658	256	137	323	141
(비중)	15.7%	19.6%	8.9%	21.3%	4.9%	23.1%	4.3%	19.1%	5.2%	20.6%
(증가율)	47.1%	-21.8%	-52.1%	-33.2%	-36.2%	24.9%	-42.6%	-8.1%	25.9%	2.9%

\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## 2. 제조업

- 금분기 제조업 투자는 28.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0.6% 증가, 신규법인수는 264개로 5.7% 감소
  - A사의 1차 금속 제조업 투자 증가(9.1억 달러)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
  - B사의 제조업 투자금액 : 4.9억달러
- 국가별로는 중국(8.9억 달러), 태국(4.9억 달러), 인도네시아(4.1억 달러), 브라질(3.4억 달러), 미국(1.4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액은 21.8억 달러로 77.5% 비중 차지
  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아시아지역 투자비중 : '08년 59.4%, '09년 59.6%, '10년 74.5%, '11년 1/4분기 66.3%, '11년 2/4분기 78.5%
- 투자금액 비중은 45.4%로 전체 업종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신규법인수 비중(38.7%)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바, 법인당 투자금액이 비교적 대규모인 것으로 보임.
- 세부업종별로는 1차 금속 제조업(9.8억 달러)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6.4억 달러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.4억 달러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1.4억 달러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1.0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

### 3. 광업

- 금분기 중 투자는 13.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1.6% 감소하였고, 신규법인수는 10개로 16.7% 감소
  - 에너지 공기업 투자(8.5억 달러)의 전년동기 대비 57.7%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
- 국가별로는 미국(5.5억 달러), 오스트레일리아(2.0억 달러), 캐나다(1.5억 달러), 미얀마(1.1억 달러), 마다가스카르(0.6억 달러), 베트남(0.4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지역별로 북미 및 대양주 지역 투자비중이 각각 53.4%, 15.1%로 상당 부분 차지
  - 북미 지역 투자비중 : '08년 34.7%, '09년 55.4%, '10년 17.1%, '11년 1/4분기 32.0%, '11년 2/4분기 35.0%
  - 대양주 지역 투자비중 : '08년 13.6%, '09년 4.7%, '10년 5.5%, '11년 1/4분기 17.5%, '11년 2/4분기 23.4%
- 신규법인수 비중(1.5%)에 비해 투자금액 비중(21.2%)이 상대적으로 큰 바, 법인당 투자규모가 매우 큰 편임.
- 세부 업종별로는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(10.6억 달러) 투자비중이 80.7%, 금속광업(1.8억 달러)이 13.7%를 차지함.

### 4. 금융 및 보험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7.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4.0% 감소하였으며, 신규법인 수는 20개로 전년동기 대비 17.6% 증가함.
  - E사의 금융업 투자(2.1억)의 전년동기 대비 39.2%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
- 지역별로는 북미(5.2억 달러), 유럽(0.8억 달러), 아시아(0.7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### 5. 도매 및 소매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3.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5.9% 증가하였으며, 신규법인 수는 141개로 전년동기 대비 2.9% 증가
- 국가별로는 미국(1.0억 달러), 중국(0.7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투자비중이 각각 32.0%, 21.7%임.
- 세부업종별로는 소매업(1.7억 달러), 도매 및 상품중개업(1.5억 달러) 순임.



## IV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

### 1. 개관

- 금분기 중 대기기업의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7.9% 감소하여 그 비중이 74.6%로 축소된 반면 중소기업은 73.1% 증가하여 그 비중이 24.0%로 확대

<표 4>

####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*	2008		2009		2010		2010. 3/4		2011. 3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대기업	16,867	389	16,353	279	19,223	372	5,014	94	4,616	81
(비중)	70.7%	9.7%	81.4%	11.3%	83.0%	13.1%	84.1%	13.1%	74.6%	11.9%
(증가율)	12.5%	-5.1%	-3.0%	-28.3%	17.6%	33.3%	78.8%	38.2%	-7.9%	-13.8%
중소기업	5,922	1,870	3,367	1,185	3,525	1,343	857	343	1,484	331
(비중)	24.8%	46.5%	16.8%	47.9%	15.2%	47.2%	14.4%	47.8%	24.0%	48.5%
(증가율)	2.9%	-18.2%	-43.2%	-36.6%	4.7%	13.3%	-20.8%	-0.9%	73.1%	-3.5%

\* 개인 및 개인기업 등 제외

- 대기기업의 투자액 비중은 74.6%인 반면, 신규법인수 비중은 11.9%에 그치고 있는 바, 대기기업의 투자건별 투자금액이 중소기업에 비해 대규모인 것으로 보임.

### 2. 대기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22.2억 달러), 광업(11.2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2.8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대기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은 48.0% 차지
  - 대기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08년 27.7%, '09년 18.2%, '10년 23.7%, '11년 1/4분기 15.4%, '11년 2/4분기 26.3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23.2억 달러), 북미(9.2억 달러), 유럽(7.2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### 3. 중소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5.6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4.1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은 37.5% 차지
  -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08년 36.8%, '09년 43.5%, '10년 52.3%, '11년 1/4분기 54.5%, '11년 2/4분기 56.0%
- 지역별로는 북미(7.3억 달러), 아시아(6.6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

## V. 기 타

### 1. 투자규모별

<표 5> 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8		2009		2010		2010. 3/4		2011. 3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50만달러 이하	815	3,042	545	1,959	585	2,159	216	580	198	552
~200만달러 이하	1,363	536	933	283	1,039	382	321	76	322	69
~500만달러 이하	1,790	208	1,308	109	1,384	141	420	27	377	26
~1000만달러 이하	1,699	96	1,117	44	1,301	67	423	12	492	19
~5000만달러 이하	5,297	109	4,068	55	4,081	68	1,095	14	1,569	10
1억달러 이하	3,002	16	2,629	13	2,249	13	300	2	697	3
1억달러 초과	9,878	18	9,485	13	12,520	16	3,189	6	2,531	4

- 건당 투자규모가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의 비중이 전년동기 76.9%에서 금분기 77.5%로 소폭 증가하였으나, 1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의 비중은 53.5%에서 40.9%로 대폭 감소하여 투자규모의 대형화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임.

### 2. 지분율별

-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전년동기 74.5%에서 금분기 66.9%로 감소

<표 6> 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8		2009		2010		2010. 3/4		2011. 3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10% 미만	736	19	430	21	302	17	56	717	38	3
~ 50% 미만	3,188	532	1,581	293	2,844	365	902	5	1,007	101
50%	358	145	657	84	170	103	42	89	119	19
~ 100% 미만	2,086	418	1,606	245	3,073	249	519	25	886	54
100%	17,476	2,911	15,811	1,833	16,769	2,112	4,444	67	4,135	506